

연중 제8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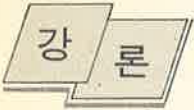
제1독서 : 집회 27, 4-7

제2독서 : 1 고린15, 54-58

복 음 : 루가 6, 39-45

순정이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1 고린15, 58).



주님, 주님!



안복진 신부/인후동 천주교회

오늘은 사순절 전 연중시기의 마지막 주일이며 3월4일은 재의 수요일로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미사에 많이 오셔서 재를 받으시고 단식제와 금육제도 지켜서 경건하게 사순절을 맞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어떤 자세로 부르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주님을 부릅니다. 너나 나나 할것없이 산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느님이란 소리를 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다 못해 ‘하느님 맏소사’라든지 ‘갓뎀(Goddam)’이라든지 하는 저주 형식의 말을 빌려서라도 한 번씩은 부를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부르고 있습니다. 일할 때, 기쁠 때, 화날 때, 아뎀든 사사건건 정신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또 그 형식도 다양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도 주님을 부르고 있을까요? 그 이유도 그 목적도 가지각색입니다. 먹을 것을 달라는 밑바닥 요청에서부터 시작해서 부귀, 권세, 영광 등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있는가?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무엇을 요구하면서 부르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마태7, 21)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턱대고 주님의 이름만을 부른다고 해서 그 요구 조건이 다 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말로만 주님을 공경하고 찬미하고 사랑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

람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마르8, 34)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기심, 자존심, 자애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앞세우고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권위와 명예를 생각하고 내 의견, 내 주장만을 고집하려는 나라면 결코 주님의 이름을 옳게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아 포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가진 것을 나누면서 참고 견디는 것, 자기를 낮추고 못한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등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일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질 용기와 의지가 만약 나에게 없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고 불러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르는 ‘주님, 주님’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 구원과 은총의 시기가 시작되는 사순절에 속죄의 생활로 보다 주님께 의합한 생활을 하면서 올바르게 주님을 부르는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3월의 느낌

정인섭(안드레아)

계절이 우주질서대로 바뀌는 것은 사람에게 축복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하느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는다면 그 또한 반가운 은총이다.

공해로 겨울이 춥지 않은 것이 가난한 이들에게 좋은 일이라고들 하지만 요즘은 워낙 가난한 이들이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도록 모두들 웬만큼 살게 되어서 춥지 않은 겨울이 그렇게 고마운 일도 아닌 것 같아 이것도 죄스러운 느낌이다.

나는 아직 과거를 즐겨 회상하게 되는 나이도 아니지만 웬지 지난 세월이 그리워지는 때를 만나면 왜 그리 갑자기 지금의 편리가 역겨운지 모르겠다. 이 숱한 문명의 기물들이 내 상전이 되어 나는 그저 그것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곤두서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많이 걷고 살던 지난날의 길들에 얽힌 추억(이 말이 그런데 왜 이렇게 낱아빠진 느낌일까), 둘러앉아 풍성하던 이야기들, 사람들의 표정이 나이먹은 나무처럼 자연스럽던 그날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없어져버렸다는 느낌이다.

3월에 시작된 전례주기가 사순절.

사순절은 해마다 땅의 느낌, 흙의 냄새로 차 있다. 이 절기에 그리스도는 땅에 박은 십자나무에 매달릴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깎은 십자나무는 뿌리가 없을 지라도 하늘의 축복을 땅에서 누릴 사람들에게 복된 나무가 된다.

십자나무의 뿌리는 우리 각자가 떠맡고 있는 고통들일 것이다. 삶의 틈틈이에 끼어 있어 찢러대는 고통의 가시들은 우리 삶을 구원으로 이끄는 뿌리이다. 아주 절기고 깊이 서린 뿌리!

나는 이 뿌리가 눈에 보이기만 해도 뽑아낼 수는 없다. 마음은 늘 뽑아내어버리고 싶다. 이 마음에 기도라는 거름이 섞이면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뒹인 피의 무게가 결실이 될 것이다.

나는 내 삶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채찍을 칠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갈라진 마음은 죄의 프락이 되어 해마다 사순절이 오는 봄의 초입에 메마른 모습으로 누워 있는 것이다.

내 죄의 무게를 심각하게 느낄 수 있기를 오늘 빌어본다. 저 인류 공동체에 내가 얼룩얼룩 끼어 있다.

죄를 묻힌 채로 나는 우리가 된다.

3월에는 한 달 서른 날 동안 무엇을 해서 내가 사는 땅을 복되게 할까?

나는 나를 잊어보리라. 몰아의 지경으로 내려가리라. 이제껏 지나치게 많았던 이른 껍데기를 열어젖히고, 생각 뚜껑을 열어내야 한다. 간헐던 실천할 일들을 시작해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구원을 위한 끝은 길이 없듯이 우리 고통은 또 오늘의 지름길이 되지 않겠는가.

조금씩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들이 자라나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함께 3월의 땅에 세우는 것, 그래서 발로 흙을 밟는 것이다.

밥 먹는 일도 흙에서 온 밥을 먹는다는 마음이어야 하고, 성서 읽기의 시간에는 게썬마니 동산의 땀내나는 흙이 눈을 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돈·쌀·피·몸-을 우리보다 덜 가진 쪽에 옮겨 놓기.

하느님의 저울은 거짓없이 기울어진다. 남에게 없는 것이 우리 손에 있을 때 그것은 명백한 죄악인 것을.

아, 복된 십자가 고통!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댓가가 반드시 치러지는 것.

꼭찬 봄기운을 우리 것으로 하려면 하느님의 손에 내 것을 꼭 채워드려야 하지. 부활은 그런 뒤에 새벽 여명 속에서 내 앞에 서 계시는 '나자렛 예수'로 온다.

십자가 고통은 죽음처럼 두려운 것, 부활은 사랑처럼 현실로 오는 것.

숲정이 산책



주님이 계시기에

또순이 인생



이영희(소피아)/원평 성당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기를 노래한 어느 시인의 여망처럼 주님 앞에 한올의 부끄러움없이 주어진 십자가를 말없이 짊어지고 힘겨운 인생살이 한국 여인네 고유의 품성대로 온갖 풍파 감내하며 살아온 사람이영희(소피아·65세) 할머니. 교육자인 부친 이상필 선생과 여칠녀 씨의 4남6녀 중 4녀로, 5대째 태종교우인 그는 교직에 계신 부친을 따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19세 때 원평으로 출가를 했다. 구교우라는 말 한마디에 혼인을 승낙한 부모님의 뜻을 따라 당시 경찰이던 남편 이병기(분도) 씨와 결혼, 슬하에 5형제를 두고 살다가 37세 때 남편을 여의니, 살길도 막막하고 자식들을 가르치고 먹여야 할 일이 꿈만 같았고 주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주여, 왜 하필 저에게 이 쓴잔을 허락하십니까? 하오나 주의 명이오니 받아 감내하겠나이다.”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며 무엇이랴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주위의 권유로 하숙을 치며 5형제를 키워갔다. 그러면서도 가장 큰 걱정은 자식들의 학비문제였다. 쉬면서 하라는 공부를 밤을 새워 하는 자식들, 좋은 성적으로도 학비 마련을 못해 학교를 쉬어야 하는 서러움에 자식을 부둥켜 안고 운 적도 여러 번이다. 보

기에 딱해 하숙생들이 건어준 학비도 마다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식을 키우겠다는 일념에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이미 고인이 된 오빠 이철희(바오로) 신부와 수녀인 언니의 따뜻한 격려의 말씀들, 주위의 고마운 마음들, 더욱이 한순간도 나에게서 떠나신 적이 없는 그분의 가이없는 사랑을 생각하며 눈물을 거두고 모진 세파를 헤쳐나갔다.

또순이같이 살아온 생활.

1978년 원평 성당 신축공사를 시작했을 때 공사장 인부들의 밥을 하며 성당의 잡일까지 했다. 83년에 시작한 레지오 활동도 근 10년간 딱 한 번밖에는 빠진 적이 없는 그. 6년째 성모회장을 맡아오면서 작은 사업으로 주위에 도움을 주고자 그의 손에는 오늘도 미역, 당면, 짓갈 등이 들려 있다. 365일을 성당에서 사시는 분. 지금도 젊은이들처럼 배움의 열정을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 혼잣말에 아들 5형제. 꿈같이 지나온 세월 속에 순간순간을 정도(正道)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애썼던 삶이 주님 대전에 작은 꽃다발로 바쳐지길 소원해본다.

신자들의 소리

하늘나라 개혁식

배형신(로사리아)/호성동 성당

‘기쁜 날, 기쁜 날,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촛불을 밝히며 주님 대전으로 나아갔던 날을 잊을 수 없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기쁨에 가슴 터질 것 같은 감격으로 얼마나 눈시울을 적셨던가! 싱그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분 곁으로 다가선 시간들. 그러나 나의 알팍한 신앙은 때때로 젖어드는 희오리바람에 흔들려 방황하곤 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각오로 곳곳하게 두 발을 내딛었을 때 주님은 그전보다 더욱 따스한 사랑으로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이제는 그분의 사랑을 더욱 열심히 전파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주님의 자녀로 태어난 지 만 일곱살이 된 오늘 건진성사를 받았다. 하느님의 어렸던 자녀가 어른들의 대열에 참여하는 개혁식이라고나 할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발육하는 속도가 다 다르듯이

하느님의 눈에 비친 나는 이제 겨우 홀로 설 만큼 성장했나 보다. 기는 신앙에서 걸음마하는 신앙으로, 천방지축 달리다가 넘어지고 다치면서 다시 일어서는 신앙으로, 젖먹던 신앙에서 이제 딱딱하고 맵고 짠 음식도 소화하는 신앙으로 단련시키기 위해 하느님은 인내와 사랑으로 나를 키워주신 것이다. 이제 그분의 일꾼으로 불림받았으니 그분께 효도하는 길만이 그분께 보답하는 길이라라.

“하느님은 십자가로 우리 어깨를 무겁게 하시는데 아니고 그것을 지고 갈 튼튼한 어깨를 주신다”는 독일 속담을 인용한 강론은 얼마나 마음을 뜨겁게 했던가! 가슴 미어지는 듯한 하느님의 현존과 손길을 느끼며 이 벽찬 감동의 오늘이 있기까지 기도하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참으로 감사하며 하느님의 축복을 간구해 마지 않는다.

1992년 사순절 교황님 담화문

창조의 식탁을 나누도록 불리운 우리

오는 3월4일(제의 수요일)이면 우리는 또다시 사순절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먼저 고통 받으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사순절은 바로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시기이다.

금년도 사순절을 맞이하여 '창조된 모든 물질적 영신적 재화의 보편적 사용'을 강조하시는 교황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사랑과 나눔으로 의미있는 사순절을 보냅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창조는 모든 이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회심으로 부르시는 사순절이 가까와 오며 즈음하여 나는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진리를 전하고 싶었으며, 이 진리에 대하여 묵상하기를 권하면서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을 드러낼 선행을 하기 바랍니다.

부활절이 되면 우리가 경축하는 지고의 사랑의 증거이신, 같은 주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아버지와 함께하시면서 모든 이들을 빠짐없이 초대하실 놀라운 창조의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요한1,3 참조). 계시의 여명으로부터 알려진 이 진리를 교회는 깨달았으며, 교회는 이 진리를 인간이 따라 걸어야 할 삶의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근년에 이르러 교회는 창조된 모든 물질적 영신적 재화의 보편적 사용을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핵심 주제로 끊임없이 선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슬픈 사실은 이처럼 이 진리가 그토록 명확하게 반복되어 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이 함께 살아가고 또 함께 살아가도록 초대된 큰 잔치마당에 비견될 수 있는 이 지상에서, 많은 경우 아직도 지상의 재화가 얼마되지 않은 소수의 손 안에 쥐여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나는 미대륙 복음화의 500주년을

기리는 이 해에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할 것을 진심으로 촉구하는 바, 이는 단순한 역사적 기념으로 남아서는 아니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세기 동안 복음이 현존하여 온 이 대륙에서 아직도 지상의 재화는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욱 가슴 아픈 것은 가난한 이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인 원주민들과 수많은 하층민들이 모든 이들을 위하여 쓰여져야 할 재화의 한 부분인 최후의 기본권 행사마저 박탈당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이 훼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당하고 있는 현 상황은 주님의 정의를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같은 자녀인 우리, 함께 형제·자매가 된 우리, 그럼으로써 창조된 모든 재화를 공유해야 할 우리는 이를 위하여 헌신함으로써 이 가난한 이들이 지체없이 창조의 식탁에 자신의 적합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에, 또한 연대활동을 벌이는 대림절 운동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연중의 주간에, 창조된 모든 재화는 모든 인간에게 봉사하는데 있다는 창조주의 뜻을 명확히 깨달아 인간 개개인과 모든 인간의 진정하고도 완전한 발전에 헌신하는데 쓰여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잊어서는 아니될 것은 복음의 핵심메시지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며, 우리의 응답은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 대한 축복과 왼쪽에 있는 이들에 대한 저주로 판단기준이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마태25, 34 이하).

주님께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빈궁한 이들을 위한 우리 모두의 헌신을 비추실 것을 열렬히 기도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복을 보냅니다. 아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계몽회원·종로회원
 학습지 주부사원을 모집합니다.
 계몽회원, 종로회원, 학습지 신청
 구독
 연락처 ☎88-8027~8
 야간 291-0279
 김 금 주(벨라도)

루 벤 호 프
 (아르바이트생 모집)
 조 민 구(프란치스코)
 유 해 미(마 리 아)
 효자동 한양 운남아파트상가
 ☎ 224-1696

새 싹 화 원
 동 양 란 전문
 유 제 형(바오로)
 김 영 근(크리스티나)
 ☎ 72-9044
 (호)012-684-4876

샤 넬 안 경 원
 이 순 구(도미니코)
 정 병 채(실 비 아)
 ☎ 54-9525
 이리익 원광대 버스
 승·하차장 앞

3월은 성요셉 성월

하늘의 뜻을 받들어



침묵은 소리없는 외침이요, 강인함이요, 전율이다. 수많은 성인들, 순교자들이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바쳐 소명을 충실히 마칠 때도 묵언으로 하늘에 눈길을 돌릴 수 있는 것은 휘광 속에 숨겨진 기쁨의 분출이리라.

성인들 중의 성인인 성요셉은 아마도 그 일생이 침묵으로 가리워진 채 하늘의 뜻만을 충실히 따르며 살으셨던 분. 3월이 되면 모든 신자들은 '성요셉이여,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으소서'라는 화살기도를 하면서 그분의 깊은 관상과 숨은 덕행을 묵상하며 나자렛 성가정을 바라본다.

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마디의 응답도 없이 은땀과 온 마음의 응답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 성자와 마리아를 보살피 성가정을 이루었다. 그의 지극한 겸손과 신앙은 이 세상에 구원을 잉태시키기에 넉넉한 빈자리였다.

어버이와 아들로서 그 의무를 다하고 역겹을 향해 일구어야 할 구속을 고락을 쪼개며 빚어내기 시작했던 곳, 성가정의 생활양식은 누구도 어려움없이 흉내낼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은 평범한 환경과 상황 안에서 성화되어갔던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성인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이룬 사람만이 성인인 것이다. 예수·마리아·요셉의 의종고 화목한 삶, 서로간의 깊은 사랑과 이해, 관대함과 포용, 기다려주는 마음이 이 현대를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에 얼마나 필요한가.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이다. 혈육을 나누었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유대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족은 왜 혈연을 잃어가고 있을까? 많은 가정이 서로 각자의 생활에 매이어 옆을 쳐다보려 하지 않고 있다. 자기만의 관심, 생활, 취미, 인생관을 즐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가족간의 대화를 나누려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 특히 T.V.를 보노라면 대화 단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한 곳을 몰두하게 된다. 이것을 일컬어 현대판 자폐성이라고 할만큼 서로가 입을 닫고 담을 쌓은 채 살아가고 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생각과 뜻을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인간 스스로가 이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음이 안타깝다.

이에 모범이 되는 성가정, 예수·마리아·요셉은 생활 안에서 서로의 역할은 달랐지만 자기 표현, 마음의 개방으로 따스한 대화를 정답게 나누면서 지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우리의 가족도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삶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감싸주는 손길에서 성가정의 향기가 피어나리라.

성요셉, 그는 구세주의 양부요 성가정의 보호자로서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직이 드리운 휘광의 그림자에 그 모습을 철저히 숨기신 분. 오늘날 우리 가정 공동체의 신실한 대화와 화목을 위해 그분께서 든든한 영적 가장으로 힘이 되어주시기를 두 손 모은다.

요십이 (969) 김병오



요한묵시록, 어떻게 읽어야 할까?
 휴거, 대환난, 1999년 종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생활성서 3월호는 여러분을 바른 신앙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생활성서사 (02)546-1004

일본 나가사키 지역 성지순례단 모집
 • 일정: 4월24일~27일(3박4일)
 • 회비: 570,000원
 • 인솔자: 서용복 신부
 • 접수처: 전일관광 ☎(0652)88-6666

대신 씽크
 각종 씽크대 판매 및 수리 공장 직영
 송재준, 박안순(로사리아) 공장 ☎213-2612
 자택 ☎211-2515
 동산동사무소 앞

형제열쇠
 APT 보조키, 빨래건조대 각종 열쇠 수리 복제, 조립식 선반
 약촌 신일, 동신APT 입구 권병문(필립보), 광영애(아네스) ☎(0653)841-5626

호남 베어링
 공구, 베어링, 체인, 노타리칼, 오일실
 한동오(레문도), 장영례(막달레나)
 부안을 선은리 225-1
 ☎점포 (0683)82-6022
 자택 (0683)83-3146

주간종합생활정보신문 호남매매정보
 광고, 상품 안내, 구인, 구직,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중고 생활용품 매매, 자동차 매매 등.
 대표 김 영 주(부보) 발행인 겸 편집인 박 선 화(세실리아)
 ☎87-6011~2 FAX85-1029
 (0654)43-2023~4 FAX43-2025

뿌리를 찾아서

고창 성당

— 나환자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터전 —



고창은 본시 마한(馬韓)의 모이부곡(牟伊部曲)현이라 불리웠고 신라 시대에는 모양부리(牟陽夫里)현, 백제시대에는 모양(牟陽)현이라 불리웠다가 고려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고창현이라 불리게 되었다. 호남 불교의 발상지라고 하는 선운사와 각종 명승고적을 주위로 한 유서깊은 고장에 '예수 그리스도왕'을 주보로 소담스레 자리잡은 고창 성당은 1960년 3월 19일 정읍 본당에서 분가하여 본당으로 설정되었다. 고창읍 성남동 386번지에 소재한 이 본당의 시작은 무장면 일대에 일찌기 신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병인박해(1866년)로 자취를 감추었다가 1887년경 라푸르카드(Arnaud Lafourcade·라) 신부가 고산 '으림골'에 주재하면서 선

교할 때 장성지방에서 이사는 신자 몇 세대가 라 신부와 그 후임 장약술(요셉) 신부 등으로부터 판공성사를 받다가 훗날 수류 본당(1895년 설정) 관할이 되었고 1937년 정읍 본당 소속으로 바뀌었다. 1948년 정읍 본당 김후성(金厚星·프란치스코) 신부의 주선으로 모양성 밑에 집한 채를 매입하여 공소로 발족했으나 6·25 사변으로 정읍 본당에 신부가 공석이 되자 신태인 본당 관할로, 1954년 다시 정읍 본당 관할로 복귀했다. 본당 승격에는 아직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처지였으나 1군1본당 주위의 교구 사무계획에 의해 1960년 3월 현 성당 부지를 매입하고 본당 설정을 보기에 이르렀다. 본당 설정 당시 신자수가 10세대에 불과했으나

1962년 160여명, 1988년 1,680명으로 불어나는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1960년 8월 소성당(현 유치원)을 신축하고 이듬해 7월에는 사제관과 창고를 완공했으며 1968년 3월에 새성당을 준공, 축성했다. 또한 평신도 제단체를 구성하고 레지오를 활성화하는 등 유교 전통이 강한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대 배영근 신부 재임시 구호사업을 벌여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1970년 3월에 한공열 주교의 도움으로 구 성당에 유치원을 설립, 지역 아동들의 교육사업과 관할 내 나환자촌인 동혜원을 통한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모범으로 보여주는 지역 공동체이다.

명상의 자리

너 사람아

사람아 사람아 흠으로 빛이
빛이 되라 한 너 사람아
해산날의 아픈 고통 속에
흔과 흔 불어
생명으로 잉태시킨
너 사람아
사랑으로 불붙는
뼈마디 아픈 가슴
모태에서부터
사랑이게 한
너 사람아



땅 위 하나
세상 끝 하나
가락 고운 비파소리
빛 밝음으로
빛이 되라 한 너 사람아
만경 창과 피 적신 울음
골수에 한이 되어
십자가의 죽음으로도
못 고칠 병
죽음의 병 앓고 있는
너 사람아

호남 벨트

뿌레, 벨트
☎ 점포 (0683)84-9696
유압호스 제작
고압호스, 와이어
한동근(바오로), 이정순(안나)

광신보일러 공구사

귀뚜라미, 경동, 대원,
ABC보일러,
각종 공구 판매
박찬근(필립보), 박선자(비비안나)
☎ 86-5038
구 형무소 삼거리←→모래내

금은
보석
시계

약혼, 결혼, 회갑예물, 목주반지 제작

금보장금방

장금태(프란치스코)
채현옥(마리아)
진주 풍납문 옆
점포 88-4989, 자택 88-4988

교 구 소 식

❖ 축! 견진

- 때 : 3월1일 오전10시
- 곳 : 부안 성당

❖ 축! 견진

- 때 : 3월8일 오전10시
- 곳 : 여산 성당

❖ 사제단 만찬

- 때 : 3월2일(월) 오후6시
- 곳 : 교구청

❖ 예비 신학생 모집

- 때 : 3월8일 오후2시
- 곳 : 가톨릭센터

❖ 가톨릭 문우회 모임

- 때 : 3월7일(토) 오후3시
- 곳 :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 가톨릭 언론인회 모임

- 때 : 3월8일 오전9시
- 곳 : 퇴재 공소
- 출발 : 가톨릭센터

❖ 원고 모집

- 주제 : 교회가 어떻게 부활해야 하는가?
개인적인 삶의 부활 체험
- 매수 : 원고지 5매 이내
- 마감 : 3월31일까지
- 문의 : 홍보국 (0652)85-0041

❖ '사랑의 다리' 윌레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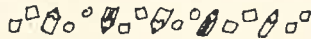
- 때 : 3월2일(월) 오전10시30분
- 곳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대상 : 회원과 사회복지활동을 후원하고자 하는 분

❖ 성빈첸시오 아 바울로회

- 교구이사회
- 때 : 3월7일(토) 오후2시
- 곳 : 중앙 성당

❖ 성모의 기사회

- 때 : 3월7일(토) 오전10시
- 곳 : 효자동 성당



❖ 엄마들을 위한 영화상영

- 때 : 3월9일(월) 오전10시
- 곳 :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 제목 : 몰로카이
- 회비 : 1,000원

❖ 축! 영명

- 4일(성가시미로) 오현택 신부님

성소모임

❖ 인보성체수도회

- 때 : 3월8일 오후1시
- 곳 : 본원 (0652)84-3231

❖ 샬트르 성바오로수녀회

- 때 : 3월8일 오후2시
- 곳 : 숲정이 성당 수녀원 (0652)252-9567

❖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 때 : 3월8일 오후2시
- 곳 : 서학동 성당 수녀원 (0652)84-2276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공해 불감증 환자

오늘날 공해문제는 일상생활에 너무나 깊이 침투해 있어서 오히려 그 심각성을 잊고 지내는 것 같다. 그러나 인류의 숨통을 점차 죄어가고 있는 공해문제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과 함께 근본 대책이 없이는 모든 나라가 경쟁적으로 맹렬히 추구하는 산업화, 근대화는 단지 인류의 파멸을 재촉하는 '바벨탑'에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동안 각종 공해문제에 대한 엄청난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먼산 불구경

하듯 불감증 환자들이 많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에도 분명히 명시된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5조) -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나 다를 바 없는 공해 무관심 환자들을 주위에서 찾아내어 그들의 흐릿하고 멍청한 사고를 일깨우고 그들의 심각한 공해 불감증을 우리가 치료해주자.

현대 컴퓨터 전북 총판

(태평양 수영장 1층)

김 종 희(빈첸시오)
윤 영 숙(엘리사벳)

☎ 74-0089, 0090

대장·항문병(치질) 전문치료

서울의원

-레이저에 의한 무통 수술로써
수술 후 정상 활동 가능 -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상담전화 75-0550

동서로삼익피아노

피아노, 교회용건, 관·현악기
일반 악기, 각종 수입악기 판매

김태우(일풍소) 황진숙(안젤라)

동서관동로 다가교 입구

☎ 88-7717~8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어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본과·연구과·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841-2496, 855-8653

용변을 배웁시다. 발표력을 기
룹시다.

호남용변종합학원

호남(제일예식장 뒤) ☎ 252-7313
새호남(전주역 앞) ☎ 253-1411
효자(삼천동쌍용APT앞) ☎ 221-8331
원장 유병철(베드로) 박경애(안젤라)

결혼·약혼·파티복·남복

고려주단 한복씨롱

전광원(마르코)

김소피아

전주시 완산구 고시동 1가 120-1

(신촌 예식장 골목)

☎ 88-1902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 송 남

1. **제의 수요일**: (단식, 금육) 저녁 7시 미사 2. **울드레아**: 오후 7시 30분 3. **자모회·성심회**: 3일 어머니미사 후 4. **반희정모임**: 5일 전 10시 30분 - 성미주머니와 저금통 배부 5. **성시간**: 5일 저녁미사 6. **사목회 월례회**: 6일 저녁미사 후 7. **12월 영세자 첫고백**: 8일 후 1시부터 6시까지(미사는 중·고생 미사에 참석 바람) 8. **부모와 함께하는 첫 영성체 교리반**: 어린이(국민학교 3학년) - 매주 토요일 후 3시, 부모모임 - 낮반: 매주 수요일 전 10시 30분 저녁반 매주 화요일 후 8시 9. **초·중·고 교리교사회 재편성**: 초등부-박미형(모니카) 외 9명 중·고등부-조세래 외 8명. 앞으로 수고 하시겠습니다. 10. **금주청소**: 남노1, 2반 차주청소 - 남노3, 4반

☐ **지난주 봉헌금**: 812,510원 ☐ **교무금**: 1,297,000원

*** 복사**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 * 재의 수요일**: 4일 단식 및 금육 미사 저녁 7시, 낮미사 없음.
1. **구역모임**: 4일 오후 8시 중앙동 1반 전 마르코새, 5일 오후 3시 중앙동 2반 막안드레아새, 6일 오후 3시 교사동 1반 이 아가다새 태.
2. **여성분과 및 구역분과 성지순례**: 2일(월) 전8:30분출발, 남양 성지
3. **회합**: ①사목회(저녁미사 후) ②대건회(공식미사 후) ③구역 분과회(3일 오전 10시) ④자모회(5일 오전 10시) ⑤밀알회(6일 오후 6:30) ⑥오셀회(8일 공식미사 후) ⑦푸리아(8일 오후 2시) ⑧청년회(8일 저녁미사 후)
4. **심자가의길**: 사순절 시기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금주전례: 유복규 독서 - 안병주씨 부부 봉헌 - 김동수씨 가족
차주전례: 조옥재 독서 - 신태성씨 부부 봉헌 - 윤계원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587,030원 ☐ **교무금**: 1,060,57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욱

- * 재의 수요일**: 4일 사순시기를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반성합니다.
1. **사목회**: 7일 저녁미사 후 2. **푸리아**: 공식미사 후.
3. **성서읽기**: 창세 4장~11장 4. **교무금** 남부의날: 매월 첫주(오늘)
5. **가정분문**: 3일(화) - 마차, 표동 4일(수) - 원의암, 계월 5일(목) - 의어두 6일(금) 오후 - 내어두, 석장
6. **금주청소**: 성실하신 동정녀 Pr.
7. **금주전례**: 해설 - 유만순 독서 ①남현준 ②김금자 봉헌 - 하태중, 이명수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 - 김영신 독서 ①김봉길 ②김미남 봉헌 - 여정진, 이옥동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61,010원 ☐ **교무금**: 177,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 연중제8주일!** (3월은성오셀성월입니다)
1. **회의**: ①반장회 - 오늘 공식미사 후 ②푸리아 - 오늘 오후 2시 ③청년회월례회 - 3월 1일(오늘) 저녁미사 후(청년들의 많은 참석 바람) ④자모회 - 3월 4일(수) 오전 10시 30분 ⑤사목회 - 3월 4일(수) 저녁미사 후 ⑥제속프란치스코회 - 다음주일(3월 8일) 오후 2시
2. **알림**: ①제의 수요일 - 3월 4일 수요일(단식과 금육의 날) 제의에 걸었습니다. 신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②교무금 -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금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분미납자가 많으며 금년도 분미납자가 많습니다. 정성껏 봉헌하여 참다운 신앙생활을 합시다. ③에비자 인도 - 성모승천반교리 가시작되었으니, 많은 인도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648,100원 ☐ **교무금**: 534,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1. **작년에 가져가신 성지가지들**을 오늘까지 성당 사무실에 제출 바람.
2. **제의 수요일(3월 4)**: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녁미사(7시) 중 제의예식 - 단식 및 금육의 날
3. **사순절제지저금통**: 신학생후원금도 금을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4. **교리실 비품봉헌**에 적극 참여 바람.
5. **사목회**: 금요일 저녁 8시
6. **구역, 반장회의**: 금요일 오후 2시
7. **형제회장, 총무회의**: 토요일 저녁 8시
8. **초등부 주일학교 개학**: 3월 7일 3시

☐ **지난주 봉헌금**: 678,770원 ☐ **교무금**: 870,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삼 권
유치원 81-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 * 새로오신 김시문수녀나 수녀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금주**: ①원장수녀님 환영식(공식미사 후) ②울드레아(공식미사 후) ③제속글라라형제회(오후 1시 30분)
2. **초등부 주일학교 개학**: 오늘부터 오후 1시 30분 교리시작 -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3. **성가정회**: 2일(월) 오전 11시. ☐ **지난주 봉헌금**: 1,678,530원
4. **사순절 기간 동안 저녁미사 전 30분 동안 십자가의 길** 있음.
5. **성체감복 및 조배**: 5일(목) 전 10시 6. **병자영성체**: 6일(금)
7. **고백성사 시간안내**: 매미사 시간 10분 전후.
8. **차량구입 후 축성식**: 홍수월 마지막 주일 공식미사 후.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이 완 규

- * 사순시기**: 알렐루야를 생략하고 제단의 화려함을 삼가합니다. 금식제는 제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 18세~60세, 금육제는 매 금요일 14세부터 어복사업과 신심수련에 열중 합니다.
1. **성시간 성체감복**: 5일 후 7시 30분, 사순절 특별강론 있음.
2. **사목회 삼일 위령회**: 6일 후 8시, 금요일 저녁으로 변경.
3. **주일학교 개학**: 7일 후 2시 30분, 부모님의 적극 협조 바람.
4. **전일신자 및 쉬는교우 방동**: 3일 후 3시, 11구역 전체 5일 - 전 10구역 1반, 후 10구역 2반, 구역 반희정은 동반바람.
5. **유아세례**: 7일 후 2시 30분 사무실에 신청서 미리 접수.
6. **풍물 강습회**: 일요일 후 2시 30분, 수요일 12시 누구나 환영.
7. **성미주머니와 저금통**: 반희정은 금일 중으로 가정에 전달

☐ **지난주 봉헌금**: 848,610원 ☐ **교무금**: 1,104,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 * 재의 수요일**: 3일(화) 저녁미사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구역반장 월례회**: 2일(화) 오후 8시. 2. **대건회**: 5일(목) 오후 8시
3. **성모회**: 다음주 미사 후 4. **사목회**: 다음주 오후 8시.
5. **주일학교 안내**: 초등부 - 오후 3시 중·고등부 - 오후 6시 (신일, 성원골드, 한양운남 APT 어린이는 오후 2시 10분에 정문앞으로 모이고 동산 APT 어린이는 오후 2시 20분에 모여면 되겠습니다)
6. **본당 도서실 운영을 위한 책기증**을 사무실에 접수해 주십시오.
7. **금주전례**: 장병순 독서·봉헌: 윤영심, 유승열
차주전례: 한병갑 독서·봉헌: 박정애, 김용우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 석 회

- * “환영” 새로오시는 수녀님들 진심으로 환영** 사목회장이 동 십 수고 많이 하시겠습니다(박에드워드, 김레지나첼리) **마리아**
*** “죽” 여성 37차**: 푸리실료수료자 축하합니다. 최정희요나, 오정옥
1. **모임안내**: 까리파스, 갈라라회(성모회로) - 금 오후 3시, 구역방사자 - 수요일 10시, 사목회 - 금요일 오후 8시, 울드레아 - 다음주 12시, 성모기사회 - 토요일 10시 미사.
2. **에비자교리안내**: 수요일(직장인) - 오후 7시 30분, 목요일(주부반) - 오전 10시 30분, 일요일(일반) - 오전 9시 30분 *** 에비자들**을 많이 인도합니다.
3. **성체회**: 성체회원은 약속된 조배시간을 꼭 지켜주십시오.
4. **주일학교 개학**: 3월 7일(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리사와 어린이미사책 꼭 준비해주시고요.)

☐ **지난주 봉헌금**: 1,273,750원 ☐ **교무금**: 1,864,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이 도

1. **푸리아**: 공식미사 후 2. **제대회** - 2(월) 오전 10시 3. **여성분과회**: 6(금) 어머니미사 후 4. **제의 수요일**: 4(수) 단식과 금육
5. **관공성사**: 백보관 참조 6. **축1 혼인성사**: 신랑 - 송채운(시몬) 신부 - 이은숙(수산나) 12:30분 오골 본당에서. 7. **중·고신입생 환영회**: (일) 학생미사 후, 대상 - 중·고신입생 누구나 8. **중고교리교육 실시**: 8(토)부터 대상 - 중~고 2까지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차주모임 - 울드레아 신축헌금봉헌액 - 790,000원
금주전례: 해설 - 김홍두 독서 ①조항렬 ②임양원 기도 ①김준태 ②양윤욱
차주전례: 해설 - 조세래 독서 ①오우전 ②최규자 기도 ①안문수 ②김미희

☐ **지난주 봉헌금**: 1,041,620원 ☐ **교무금**: 2,140,000원

☐ **나눔헌금**: 465,110원